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보다 나은 정부

2019년 1월 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 3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1. 3.(목)	담당부서	투자유치과
담당과장	김재준 과장 (044-203-4080)	담 당 자	장원 사무관 (044-203-4086)

2018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

- '19. 1. 3(목) 배포 -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본 동향 자료는 산업부의 외국인투자통계 및 외국인직접투자 연구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**2018년 연간 전체** 외국인직접투자를 분석한 자료임

○ 신고금액 및 도착금액은 **12월 31일까지의 실적 잠정치를**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, **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**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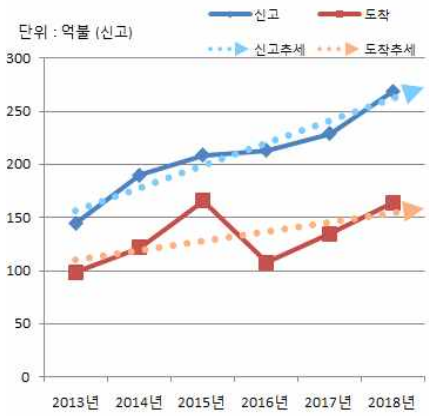
○ 산업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**매분기마다 발표**되며, **'19년 1분기**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**'19년 4월 중순경 발표예정**

<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의 특징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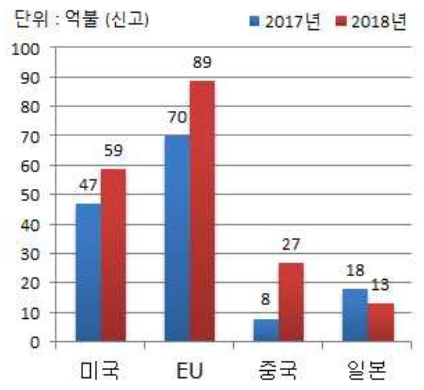
1 신고기준 269.0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 달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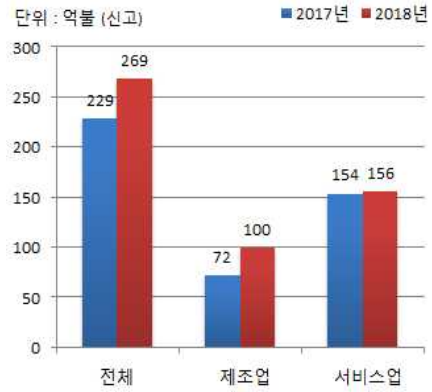
2 "4년연속 200억 달러" 이상을 기록해 외국인투자 장기 상승추세 유지



3 전통투자국(EU·미)의 견조한 증가세 유지, 중국 투자 급증



4 서비스업은 전년과 비슷, 주력산업·신산업 중심의 제조업은 증가



2018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

‘18년 외국인투자 신고기준 269억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 달성!!

- “4년 연속 200억 달러” 이상을 기록, 외국인투자 장기 상승추세 유지 -
- 전통투자국(유럽연합·미)의 견조한 증가세 유지, 중국 투자 급증 -
- 서비스업은 전년과 비슷, 주력·신산업 중심 제조업 증가 -

Ⅰ. 종합

1 **(실적)** 외국인직접투자가 **신고**기준 전년대비 **17.2% 증가**한 **269.0억 달러**로 **역대 최대실적**을 기록했고, **“4년 연속 200억 달러”** 이상을 달성하며 **상승추세 유지**

○ **도착**기준으로도 **전년대비 20.9%** 증가한 **163.9억 달러**을 기록하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* 속에서도 외국인투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음을 입증

*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, 한·미간 금리격차 / 국내생산, 설비투자 부진, 고용회복 지연 등

2 **(추이) 신고 실적**은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온 **외국인투자의 상승모멘텀을 유지**하며 금년 2분기까지 157.5억 달러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였으며, 3~4분기는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간으로는 **역대 최대실적을 달성**

[분기별 동향(신고, 억 달러, 전년동기비, %)]

	1분기		2분기		3분기		4분기		연간	
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
2017년	38.6	△9.0	57.4	△9.1	39.9	△11.2	93.6	+49.8	229.4	+7.8
2018년	49.3	+27.9	108.2	+88.5	34.5	△13.6	77.0	△17.8	269.0	+17.2

○ **도착 실적**도 상반기까지 102.0억 달러를 기록하며 **안정적 상승세를 유지**했으며, 3~4분기는 전년대비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으로는 **역대 두 번째 실적을 달성**

* 도착기준 역대 최대실적: ‘15년 165.8억 달러

[분기별 동향(도착, 억 달러, 전년동기비, %)]

	1분기		2분기		3분기		4분기		연간	
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
2017년	30.5	+45.1	24.0	△21.0	34.3	+49.2	46.8	+39.7	135.6	+25.7
2018년	31.0	+1.7	71.0	+195.8	19.9	△42.1	42.0	△10.2	163.9	+20.9

3 **(평가) 역대 최대실적 달성요인**으로는 **한국경제의 굳건한 기초체력(펀더멘탈) 유지와 다각적인 투자유치 노력의 결과**로 요약할 수 있음

○ 먼저,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완화, 수출 6천억 달러 최초 달성, 세계 국내총생산(GDP)의 77%를 차지하는 자유무역협정(FTA) 네트워크 확보,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*,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(R&D) 인력 보유 등이 외국 투자가에게 **한국이 매력적 투자처**라는 인식**을 확고히 함

* 무디스: Aa2, Stable(’15.12월), S&P: AA, Stable(’16.8월), 피치: AA-, Stable(’12.9월)
** 블룸버그 혁신지수 5년 연속 1위(‘18),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(Doing business) 5위(’18)

○ 투자분야는 ❶반도체·기계·석유화학 등 **우리 주력산업 분야의 가치사슬(밸류체인)에 참여하기 위한 투자**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, 이에 더해 최근 ❷바이오·자율차센서·전자상거래·공유경제 등 **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**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, **❸청정·재생에너지, 해양레저 등 새로운 분야**로 확대되었음

< 투자분야의 다양화 >

❶ **주력산업 밸류체인 참여**: 반도체소재(웨이퍼) 생산기지 확보, 첨단 신소재 특수폴리머 생산공장 신설, 자동차용 전장·편의부품 공장 증설 등
❷ **4차산업혁명 관련 신사업**: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 및 생산거점 확보, 자율주행차 센서 공동 연구개발,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을 겨냥한 온라인쇼핑몰 인수 등
❸ **새로운 투자영역 개척**: 고효율 풍력터빈·블레이드 생산공장 건설, 레저선박(요트) 계류시설·호텔·해상공원 등을 포함한 마리나 항만개발 등

○ **고위급**(장관·본부장 등) **투자유치설명회**(IR, 8회), **외국인투자 카라반**(4회), **분기 외투기업인의 날**(5회), **지자체 정책협의회**(4회) 등 **다각적인 투자유치 노력도**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것임

< 다각적인 투자유치 노력 >

▲ **투자유치설명회**(IR): 산업부를 중심으로 지자체·유관기관이 외국투자가를 직접 접촉하여 외국인투자 계획을 현실화 (장관(미국(4月), 중국(6月), EU(10月)) 등 총 8회)
▲ **외국인투자 카라반:** 지역소재 외투기업의 애로해소를 통해 증액투자를 유도하는 지방순회 투자유치활동 (창원(5月), 대전(8月), 대구(10月), 여수(12月) 등 4회 개최)
▲ **분기 외투기업인의 날:** 외투유치에 공로가 있는 기업에 표창수여 등 외투기업 사기진작과 투자유치 세미나를 통해 정보공유 (’18년 총 5회 실시, 15개 기업에 표창수여)
▲ **지자체 정책협의회:** 외국인투자 및 외국기업유치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산업부-지자체간 회의 (4월, 6월, 9월, 12월 등 4회 개최)

Ⅱ. 세부동향

1. 국가별 특징(연간누적, 신고기준, 전년대비)

❶ 유럽연합(EU)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실적 달성(+26.9%)
❷ 미국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, 서비스업 모두 고른 증가세(+24.8%)
❸ 중국은 제조업, 서비스업 모두 급증해 역대 최대실적 달성(+238.9%)
❹ 일본은 제조업, 서비스업 모두 감소(△29.4%)

□ **유럽연합(EU)** (전체 외투의 33.2%)

◈ 신고기준은 전년대비 26.9% 증가한 89.2억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 (기존 '16년, 74억 달러)을 달성, 도착기준은 24.6% 감소한 49.4억 달러을 기록

○ **(추이)** 1~2분기부터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(상반기 +105.9%)를 보였으며, 3~4분기 전년 수준을 유지하여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

[유럽연합(EU) 분기별 동향(신고, 억 달러, 전년동기비, %)]

	1분기		2분기		3분기		4분기		연간	
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
2017년	8.8	△50.0	13.4	△45.3	9.3	△16.0	38.8	+86.8	70.3	△5.0
2018년	18.7	+112.9	27.0	+101.3	5.6	△39.6	37.9	△2.3	89.2	+26.9

○ **(업종별) 유럽연합(EU)발** 외국인직접투자(FDI)의 41.7%를 차지하는 **제조업**은 전년대비 3.5% 감소한 **37.2억 달러**을 기록, 외국인직접투자(FDI)의 45.9%를 차지하는 **서비스업**은 전년대비 36.5% 증가한 40.9억 달러를 기록

- **(제조업) 운송용 기계**(19.9억 달러, +537.5%), **기계장비·의료정밀**(1.5억 달러, +83.3%), 분야는 증가; **화공**(7.4억 달러, △62.7%), **전기·전자**(6.3억 달러, △31.7%) 분야는 감소

- **(서비스업) 금융·보험**(21.8억 달러, +176.4%), **숙박·음식점**(5.2억 달러, +560.5%) 분야에서 크게 증가; **도·소매**(7.2억 달러, △26.8%), **정보통신**(1.4억 달러, △54.6%) 분야는 감소

○ **주요특징**

- **(증가이유) 고위급 투자설명회**(장관, 프랑스, 10월)를 통해 유럽 투자가에게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적극적 홍보해 **역대 최대실적 달성**에 기여

* 장관 주재 유럽IR시 6억 달러 투자신고로 "4년연속 200억 달러"도 최단기간 달성(10.15)

- **(업종별 특징)** 고기능성 플라스틱·이차전지 등 기존 **주력산업의 가치사슬(밸류체인) 참여**를 위한 투자, 자율주행차·전자상거래 등 **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**, 청정·재생에너지 및 서구형 항만 개발 투자 등 **투자대상 다변화에 성공**

< 유럽연합(EU)發 외국인투자(FDI) 주요사례 >

< 주력산업 >

▲ **(화공)** 엔지니어링 플라스틱, 실리카 등을 생산하는 벨기에의 A기업은 국내 첨단 특수 폴리머 생산을 위한 신규투자 결정

▲ **(이차전지)** 전기차·ESS 등 급증하는 전방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차전지 소재(양극재)를 생산하는 B기업의 기존 공장을 증설하는 투자

< 4차 산업혁명 >

▲ **(자율주행차)** 자율주행차 개발·확산을 추진하는 영국의 C사가 한국의 자동차 부품기업에 GVC참여를 목적으로 전략적 투자를 단행

▲ **(온라인쇼핑몰)**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중국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프랑스의 세계적 화장품 그룹 D사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

< 기타 >

▲ **(재생에너지)** 독일 풍력터빈 전문업체 E사는 국내외 풍력발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어없는 고효율 터빈과 블레이드(날개) 생산 공장을 설립

▲ **(마리나 항만개발)** 국민 삶의 질 변화를 반영한 레저선박(요트) 계류시설, 호텔, 상업시설, 해상공원 등을 포함한 마리나 시설 구축을 위한 신규 투자

2 미국 (전체 외투의 21.9%)

◈ 신고기준은 전년대비 24.8% 증가한 58.8억 달러, 도착기준은 전년대비 210.5% 증가한 37.5억 달러을 기록

○ **(추이)** 1~3분기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여 4분기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간기준으로 전년대비 증가세 달성

[미국 분기별 동향(신고, 억 달러, 전년동기비, %)]

	1분기		2분기		3분기		4분기		연간	
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
2017년	3.7	△33.1	20.8	+64.7	4.6	△63.6	18.1	+124.8	47.1	+21.6
2018년	7.4	+102.3	22.8	+9.3	10.8	+135.8	17.8	△1.2	58.8	+24.8

○ **(업종별)** 미국발 외국인직접투자(FDI)의 30.2%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전년대비 **34.2%** 증가한 **17.7억 달러을** 기록, 외국인직접투자의 68.8%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은 전년대비 **19.4%** 증가한 **40.4억 달러을** 기록

- **(제조업) 화공**(7.5억 달러, +130.1%), **기계장비·의료정밀**(2.7억 달러, +1,519%), 분야는 크게 증가한 반면, **운송용기계**(5.2억 달러, △5.5%), **전기·전자**(1.8억 달러, △18.6%) 분야는 일부 감소

- **(서비스업) 부동산**(13.7억 달러, +5.0%), **정보통신**(17.4억 달러, +363.3%) 분야는 증가했고, **숙박·음식**(0.7억 달러, △91.2%), **연구개발**(0.5억 달러, △70.6%)분야는 감소세를 보임

○ **주요특징**

- **(증가이유)** 기술력이 있는 한국기업에 지분투자를 통한 **제3국 진출**, 국제 가치사슬 편입 등 **합작투자가 증가**

- **(업종별 특징)** 화공, 기계장비 등 **전통적인 주력산업은 여전히 강세**를 유지, 바이오·전자상거래 등 **신성장 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투자**도 지속적으로 확대

< 미국발 외국인직접투자(FDI) 주요사례 >

▲ **(바이오시밀러)** 미국의 세계적인 바이오기업 A사가 한국의 우수한 BT인프라 및 인력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증액투자

▲ **(전자상거래)** 지속적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전망과 역(易)직구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IT기업 및 펀드로부터 투자유치

3 중국 (전체 외투의 10.2%)

◈ 신고기준은 전년대비 238.9% 증가한 27.4억 달러, 도착기준은 전년대비 287.3% 증가한 7.8억 달러을 기록

○ **(추이)** 1~2분기 급증한 상승 모멘텀에 힘입어 4분기까지 전년대비 증가세를 꾸준히 시현하며 '17년 감소세를 상승세로 전환하는데 성공, '17년(8.1억 달러) 대비 238.9% 증가한 27.4억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 달성

[중국 분기별 동향 (신고, 억 달러, 전년동기비, %)]

	1분기		2분기		3분기		4분기		연간	
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
2017년	1.6	△56.4	3.2	△5.1	1.3	△86.4	2.0	△48.0	8.1	△60.5
2018년	10.5	+541.5	11.5	+266.2	1.9	+43.8	3.5	+76.1	27.4	+238.9

○ **(업종별)** 중국발 외국인직접투자(FDI)의 31.6%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전년대비 **283.1% 증가한 8.7억 달러**, 외국인직접투자의 66.5%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은 전년대비 **227.5% 증가한 18.3억 달러을** 기록

- **(제조업) 전기·전자**(3.0억 달러, +757.9%), **기계장비·의료정밀**(1.7억 달러, +2,346.9%), **식품**(1.6억 달러, +8,682.5%)이 크게 증가, **화공**(0.1억 달러, △95.8%)은 감소

- **(서비스업) 부동산**(9.3억 달러, +2,115.3%), **금융·보험**(5.9억 달러, +15,800.7%)이 크게 증가, **도·소매**(0.8억 달러, △33.6%), **정보통신**(0.7억 달러, △57.2%)은 감소

○ **주요특징**

- **(증가이유)** '16년 이후 2년만에 재개된 **고위급 IR**(장관, 6월)을 통해 중국기업의 대한(對韓) 투자를 현실화하여 **역대 최대실적 달성**

* 장관 주재 중국 IR시 자동차, 소비재, 바이오 등 분야에서 5억 달러 투자신고 완료(6.5)

- **(업종별 특징)** 금융·보험, 부동산, 식품 등 **전통적인 투자분야**에서 로봇, 신재생에너지 등 **신산업까지 투자범위가 광범위**하며, 한국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, 지분투자 등 **투자방법도 다양화**

< 중국發 외국인직접투자(FDI) 주요사례 >

▲ **(식료품가공포장)** 한국산 식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신뢰도를 기반으로 채소, 과일 등을 가공·포장 후 중국으로 재수출하기 위한 신규투자

▲ **(반도체장비)** 디스플레이 수출에서 높은 성장성을 보인 한국기업이 중국의 로봇제조기업의 기술력을 접목하여 공장 자동화 장비개발을 위한 신규투자

4 일본 (전체 외투의 4.8%)

◈ 신고기준은 전년대비 29.4% 감소한 13.0억 달러, 도착기준은 전년대비 19.3% 감소한 10.2억 달러을 기록

○ **(추이)** 3분기까지 지속적 하락세(△42.6%)를 보이면서, 4분기에 소폭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'16년도 수준(12.5억 달러)으로 감소

[**일본 분기별 동향**(신고, 억 달러, 전년동기비, %)]

	1분기		2분기		3분기		4분기		연간	
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
2017년	4.1	+153.0	4.1	△22.5	8.7	+346.7	1.6	△56.5	18.4	+47.9
2018년	3.7	△9.6	5.0	+22.5	1.0	△89.0	3.3	+112.6	13.0	△29.4

○ **(업종별)** 일본발 외국인직접투자(FDI)의 50.9%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전년대비 **31.5% 감소한 6.6억 달러을** 기록, 외국인직접투자의 48.5%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은 전년대비 **27.2% 감소한 6.3억 달러을** 기록

- **(제조업) 비금속 광물제품**(1.3억 달러, +142,639%), **기계장비·의료정밀**(1.1억 달러, +222.3%)**은 증가, 전기·전자**(1.5억 달러, △36.9%), **화공**(1.1억 달러, △56.7%)은 감소

- **(서비스업) 정보·통신**(1.7억 달러, +23.9%), **금융·보험**(1.4억 달러, +16.5%)은 증가, **도·소매**(1.2억 달러, △27.3%), **부동산**(0.4억 달러, △86.6%)은 감소

○ **주요특징**

- **(감소이유)** ❶**한국 수요기업의 해외 이전**으로 인한 일본기업의 對韓 투자 수요 감소, ❷전통적인 투자 분야인 **화공, 전기전자 분야의 설비투자 주기**(3~5년) 영향, ❸일본의 해외투자가 **중국 및 아세안 국가로 집중***되는 상황, ❹**일본내 자체 설비투자 증가****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힘

* ('17.3Q → '18.3Q, 단위:억엔): 싱가폴 6,632 → 13,887, 중국 7,771 → 8,456, 태국 4,180 → 6,200

** '18년 2분기 금융·보험업을 제외한 기업의 설비투자액이 전년동기 대비 12.8% 증가한 10조 6,613억엔(약 107조원)으로 '07년 1분기 이래 11년만에 최대치 기록 (日 재무성,18.9월)

- **(투자다변화)** 콘텐츠(게임), 정보기술(IT), 플랫폼(IoT, SW) 등 디지털 경제 관련 투자는 꾸준히 증가세

< 일본발 외국인직접투자(FDI) 주요사례 >

▲ **(IT플랫폼, 핀테크)** 정보기술(IT) 플랫폼과 기업소유 지적재산소유권(IP)을 결합해 모바일 게임 개발을 위한 투자와 전자결재 분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투자

▲ **(금융 보안기술)** 일본 금융기업 A사는 전 세계 200여 금융 계열사에 보안 솔루션 기술 도입을 위해 국내 보안 스타트업 기업 투자를 통해 합작법인 설립

2. 업종별 특징(연간누적, 신고기준, 전년대비)

❶ 제조업 투자는 기계장비 · 의료정밀, 운송용기계를 중심으로 증가세

❷ 서비스업 투자는 전자상거래, 핀테크 등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증가세

1 제조업 (전체 외투의 37.4%)

◈ 신고기준은 전년대비 38.9% 증가한 100.5억 달러, 도착기준은 전년대비 25.7% 증가한 68.5억 달러을 기록

○ **(업종별)** 전통적인 장치산업인 **화공, 전기·전자는 소폭 감소**하였으나, **운송용기계, 기계장비에서 높은 성장세**를 보임

- **(증가업종) 운송용기계**(9.0 → 51.1억 달러, +465.9%), **기계장비·의료정밀**(5.1 → 8.6억 달러, +68.8%), **식품**(1.6 → 2.2억 달러, +36.0%), **비금속광물제품**(1.0 → 1.5억 달러, +48.9%) 등

- **(감소업종) 화공**(29.2 → 18.2억 달러, △37.7%), **전기·전자**(15.1 → 13.5억 달러, △10.3%), **금속·금속가공제품**(5.3 → 3.6억 달러, △33.4%) 등

○ **(주요특징)** 국내 대기업과의 **국제 가치사슬 형성**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**신산업 분야 기술경쟁력 확보**를 위한 투자가 활발

- **(GVC 형성)** 국내 대기업과의 협력모델 구축과 **전·후방 연관산업**(소재·부품) 투자를 통해 **"국제 가치사슬 완성형"** 투자가 증가

* 전기전자(반도체), 운송용기계(車부품), 정밀기계 등 한국의 주력산업 중심 투자 활발

- **(기술경쟁력 확보) 자율차센서, 항공·드론, 바이오·제약** 등 기술력은 있으나, **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**가 활발

< 제조업 분야 외국인직접투자(FDI) 주요사례 >

▲ **(반도체웨이퍼)** AI·IoT·빅데이터 등 급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여 반도체 소재(웨이퍼)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

▲ **(車부품)** 국내 완성차 부품 수주에 따른 공급물량 증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공장 통합·증설을 위한 증액투자

▲ **(자율차센서)** 센서분야 세계1위 업체인 스위스 S사의 한국 강소기업에 대한 신규투자로 기술협력 및 자율차 센서 연구를 통해 시장점유율 확대가 목표

▲ **(항공·드론)** 한국 드론시장 진출과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드론 및 항공기용 부품 분야 강소기업인 폴란드 U사의 신규투자

2 서비스업 (전체 외투의 57.9%)

◈ 신고기준은 전년대비 1.4% 증가한 155.8억 달러, 도착기준은 전년대비 19.7% 증가한 95.1억 달러을 기록

○ **(업종별)**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**정보통신, 사업지원·임대** 분야는 급성장, 국내경기 부진·소비심리 회복지연으로 **부동산, 도·소매** 분야는 감소

- **(증가업종) 금융·보험**42.9 → 48.9억 달러, +13.8%), **정보통신**(13.3 → 31.2억 달러, +135.6%), **사업지원·임대***(1.6 → 4.1억 달러, +156.1%)

* 사업시설 유지관리(청소·방제·조경등), 경비·경호업, 여행사, 운송장비·산업용기계 임대업 등

- **(감소업종) 부동산**(44.3 → 38.6억 달러, △12.8%), **도・소매**(유통)(20.4 → 16.0억 달러, △21.5%), **숙박・음식점**(15.7 → 7.8억 달러, △50.5%)

○ **(주요특징)** 디지털 경제 트렌드 확산에 따라 **정보기술(IT) 플랫폼·클라우드·전자상거래·핀테크** 분야 등 다양한 **신산업 서비스 분야**에 투자가 집중

- **(정보기술(IT)서비스)** O2O(Online to Offline)·전자상거래·클라우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, 모바일 플랫폼 구축을 위한 투자가 증가세를 보임

* 우수한 IT·모바일 환경과 까다로운 소비자를 바탕으로 국내 대형 IT서비스 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민간·공공시장을 함께 공략하는 경우도 발생

- **(금융·핀테크)** 사모펀드(PEF) 중심의 **투자**가 꾸준히 유입되었으며, **핀테크 관련 소프트웨어(SW) 개발 및 플랫폼 구축**을 위한 투자가 증가

<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(FDI) 주요사례 >

▲ **(O2O서비스)** 국내 최대 O2O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급성장하는 국내 배달앱 시장선점과 플랫폼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

▲ **(전자상거래)**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미래 성장성과 온라인+오프라인을 연계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인정한 미국의 자산운용사가 대규모 증액투자

▲ **(클라우드)** 우수한 ICT·클라우드 인프라, 정부의 클라우드 산업 육성정책으로 국내 민간·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용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증액투자

▲ **(공유플랫폼)** 공유경제라는 사회적 트렌드를 바탕으로 도심의 대형건물을 임차하여 잘게 쪼개 임대해 주는 비즈니스 모델에 증액투자

3. 유형별 특징(연간누적, 신고기준, 전년대비)

❶ 그린필드형 투자는 5년 연속 증가*하여, 신고기준으로 27.4% 증가한 200.1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 기록, 도착기준은 65.9% 증가한 115.0억 달러

* 그린필드 (억 달러) : ('13) 95.7 → ('15)141.1 → ('17) 157.0 → ('18) 200.1

❷ 인수합병(M&A)형 투자는 합작투자 감소로 신고기준 4.9% 감소한 68.9억 달러, 도착기준은 26.2% 감소한 48.9억 달러

1 그린필드형 투자 (전체 외투의 74.4%)

○ **(업종별) 제조업은 증가**(+115.6%)한 반면, **서비스업은 감소**(△1.0%)

* ① 그린필드형·제조 : 74.7억 달러(+115.6%), ② 그린필드형·서비스 : 120.3억 달러(△1.0%)

○ **(주요특징) 주력산업**(자동차, 전기・전자, 기계장비・의료정밀 등) **분야에 대한 투자**가 여전히 활발한 가운데 **신성장산업 분야**(정보통신, 재생에너지설비 등)로 **투자영역이 확대**됨

< 그린필드형 FDI 주요사례 >

▲ **(웨이퍼 생산공장 증설)** 스마트폰, IT기기, 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라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을 위한 공장증설 투자

▲ **(클라우드 분야 투자)** 우수한 ICT·클라우드 인프라, 정부의 클라우드 산업 육성정책으로 국내 민간·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용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한 증액투자

2 인수합병(M&A)형 투자 (전체 외투의 25.6%)

○ **(업종별)** 인수합병(M&A)형 **제조업은 감소**(△31.7%)한 반면, **서비스업은 증가**(+10.4%)

* ①인수합병(M&A)형·제조: 25.7억 달러(△31.7%), ②인수합병(M&A)형·서비스 : 35.6억 달러(+10.4%)

○ **(주요특징)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국내기업**에 외국인투자가 들어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여 이를 기반으로 **기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** 하는 효과를 기대

* 전체 M&A는 감소했지만, 1억 달러이상 M&A는 ('17년)47억 달러 → ('18년)53억 달러로 소폭 상승

< 인수합병(M&A)형 외국인직접투자(FDI) 주요사례 >

▲ **(금융보험)** 사모투자 전문기업이 업황부진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 한계기업의 활력을 제고

▲ **(중고차 사업부 매각)** 호주 최대규모 온라인 자동차 유통기업이 한국의 중고차 관련 기업의 지분을 인수, 향후 동북아 시장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투자

Ⅲ. 2019년도 전망 및 향후계획

1. 2019년 전망

□ **(글로벌 FDI 전망)** '19년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(FDI)는 **긍정적·부정적 요인이 상존**하여 상승 또는 감소 추세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임

○ **(긍정적 요인)** 4차 산업혁명 성숙으로 국제 가치사슬(GVC) **투자 가속화**, 인도, 브라질, 아세안(베트남·말련·인니 등) **신흥국의 경제 성장** 예상, 이전 국제 외국인직접투자(FDI) 추세 분석 결과* **소폭의 기술적 반등**을 기대

* 국제통화기금(IMF) 경제전망('18→'19, %): 인도 7.3 → 7.4, 브라질 1.4 → 2.4

** 글로벌 FDI(조 달러): ('12) 1.57 → ('13) 1.43 → ('14) 1.34 → ('15) 1.92 → ('16) 1.87 → ('17) 1.43

○ **(부정적 요인) 글로벌 경기침체** 우려*, **국제유가 하락**** 등 주요 거시변수의 변동성 지속, 미·중 무역분쟁, 브렉시트(Brexit) 현실화 등 **국제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** 등으로 투자가 위축될 전망

* 국제통화기금(IMF)은 '19년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.9%에서 3.7%로 0.2%P 조정(중국 0.4%P, 미국 0.4%P, 일본 0.2%P 각각 하향조정)('18.10월)

** '18년보다 낮은 65$/B 전망(두바이유 기준)

□ **(우리 FDI 전망)** '19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(FDI) 여건 역시 녹록치 않은 것으로 전망

○ **(긍정적 요인)** 남·북관계 개선 등 **지정학적 위험 완화**, 자유무역협정(FTA) **네트워크** 활용 가능성 증대, 우리 **제조업이 보유한 국제 경쟁력*** 등 매력요인은 지속되는 상황

* (반도체)세계 최초 단일제품 1천억불 수출, (OLED)세계시장 점유율 95.5%, (자동차)우수한 부품공급망, 세계최초 수소차 양산, (화학)세계 4위 석유화학 생산국, (가전)TV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, (고급소비재)화장품 위탁제조 세계 1위

○ **(부정적 요인) 국제** 외국인직접투자(FDI)의 부정적 요인과 함께 국내 **투자 부진 지속**될 우려, 수출 둔화 등 **성장세 제약 가능성** 제기, **생산가능인구 감소*** 등으로 외국인투자가 위축될 가능성

* 생산가능인구(전년비 만명): ('18.1Q) △4.7, ('18.2Q) △7.5, ('18.3Q) △6.9, ('18.10~11) △6.6

2. 향후 계획

□ **산업부**는 **지자체·유관기관 등과 총력 체계를 가동**하여 **"5년 연속 200억불"이상의 목표를 달성**해 나갈 계획임

○ **기본 방향**으로는 최근 4~5년간 지속된 외국인직접투자(FDI) 증가 추세를 2019년에도 유지하여 외국인투자가 **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**하고, **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**할 수 있도록 **기술력 있는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**해 나갈 계획

○ 구체적으로는 **▲4차 산업혁명 대비 잠재적 투자자 발굴·확보**, **▲타겟팅 투자자를 대상으로 성과창출형 투자유치활동*** 전개, **▲기업친화적 인센티브 운용과 선제적 애로 해소** 등의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

* 정부와 산업계가 중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(수소·전기차, 반도체·소재, AI·5G, 헬스케어, 자율주행차, 로봇, IoT, 에너지신산업 등)과 연계한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("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", 산업부 업무보고 '18.12.18)

□ 또한, 산업부는 **외국기업과 투자가와의 소통 강화**를 위해 고위급 투자유치설명회, 외국인투자 카라반,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, 지자체 정책협의회 등 **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**해 나갈 계획임. <끝>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장원 사무관(☎ 044-203-408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